

"예전 '환경'이 더 편했주...세상 변하며 더 고돼"

[제주잠녀] 4부 '잠녀,지키다' <177> 하도리 굴동네 고명순·임정연 잠녀(2)

등록 : 2011년 04월 27일 (수) 09:53:25
최종수정 : 2011년 04월 27일 (수) 09:53:2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하도리 잠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순번 정해서 지원 받는 고무뿔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존재, 작업 따라 허벅수 제각각서해로 바깥물질...무형문화유산 등재 노력 등 알고 있지만 바다 작업 혼자서는 못해

순번 정해서 지원 받는 고무뿔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존재, 작업 따라 허벅수 제각각서해로 바깥물질...무형문화유산 등재 노력 등 알고 있지만 바다 작업 혼자서는 못해

'제주 어머니'들의 기억을 더듬는 사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고향의 잠녀가 물질을 하는 도중 사망했다는 뉴스는 해마다 끊이질 않는다. 다행히 함께 작업하던 잠녀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찾아 헤맸고, 그 마지막을 놓치지 않았다. '조금만 빨리 알았어도...' 하는 아쉬움에 숨비소리보다 깊은 한숨에 한 며칠 바다 쪽은 돌아보지도 않을 거란 걸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프다.

지금도 귀한 '고무옷'



▲ 최근 하도지역 해녀들이 흑해삼작업을 위해서 서해안으로 바깥물질을 나가고 있다. 사진은 충남태안지역 잠녀의 작업 모습. 강만보 사진집 「서해안의 제주해녀」 중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바다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 바다로 가는 잠녀들의 발이 가볍다.

고명순 굴동네 잠수회장(55)과 임정연 총무(60) 역시 힘든 줄 모르고 작업을 했다.

최근 몇 년간 작업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법'잡았다. 상군 잠녀가 1년 1000kg이상 작업을 한다면 지난해는 거의 배 이상 작업을 했을 만큼 바다발이 풍년이였다.

고 회장은 "물이 풍년이면 바다도 풍년"이라고 했다. 지난해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던 덕택에 바다 발이 넉넉해졌다. 날씨 탓에 작업일수가 조금 줄고 추위가 힘들기는 했지만 묵직한 망사리 덕에 힘이 났다.

슬쩍 고무옷 얘기를 물었다.

고무옷이 보급되면서 잠수병도 생겼다. 임 총무는 "고무옷을 입으면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고무옷이 없을 때는 겨울에는 바다에 가지 않았다. 지금은 바람만 없으면 바다에 간다. 작업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임 총무는 "헛물질에 4~5시간은 기본"이라며 "고무옷을 입기 전에는 한 몇 분 작업하고 나면 이내 물에서 나와 몸을 풀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모두가 고무옷을 입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바깥물질을 나간 잠녀들이 샴 대신해 고무옷을 받았고 작업 능률이 높아지다 보니 하나 둘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고가다 보니 선택이 쉽지 않은 않았다. 지금도 고무옷 한 벌에 27만원이나 한다.

임 총무는 "1970년대에도 당시 돈으로 20만원이 넘었다"며 "지금도 모자만 2만원이나 한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역마다 고무옷을 못 입게 하는 곳도 많았다. 임 총무는 "처음에는 팔 하나씩, 모자만 하는 식으로 구색을 맞췄다"고 귀띔해줬다.

자치단체에서 보급하는 고무뾰는 차례를 기다리는데만 5~6년이 걸린다.

고 회장은 "어촌계마다 지원되는 고무뾰이 한정된 데다 잠녀수가 많은 곳은 순번을 정하는 것도 일"이라며 "우리 동네만 해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상·하의를 나눠서 지급해도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도내에 고무뾰를 취급하는 매장은 줄잡아 4곳. 그래도 악착같이 기워서 입고, 때워서 입는다.



▲ 지난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다 사정은 풍년이다. 하도 잠녀들이 채취한 톳을 말리고 있다.

다시 시작된 '바깥물질'

고무뾰는 넉넉하지 않아도 허벅만큼은 충분히 챙긴다. 물질을 하는 집에는 줄잡아 대여섯 개의 테왁을 가지고 있다. 작업을 할 때마다 챙기는 숫자도 다르다.

공동어장을 해결할 때면 두 개에서 세 개, 우뚝가사리 같은 해초를 작업할 때는 다섯 개까지 챙겨야 수월하다.

고 회장은 "테왁은 얼마나 작업을 할 거냐에 따라 알아서 챙긴다"며 "중바다에서 먼바다까지 나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평균보다 큰 테왁을 쓰는 잠녀도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부터 바깥물질 나가는 잠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1960년, 1970년대 '돈 벌젠' 나간 길 고생이 참 많았다. 박한 대접에 험한 꼴도 많이 봤다.

모진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 차마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시달렸던 기억이 어제 같은데 물질을 하러 제주를 떠난 사정이 궁금해진다.

이들 잠녀들이 향하는 곳은 서해안 일대, 흑해삼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하도리 전체를 통틀어 10여명 정도가 바깥 물질을 나선다. 벌써 5년 정도 됐다. 벌이도 좋고, 이제는 제주 출신으로 현지에 정착한 잠녀들이 많아 타향살이도 견딜만하다고 했다.

임 총무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얼마 정도 수수료를 떼어주고 작업을 한다고 들었다"며 "그래도 일한 만큼 벌 수 있으니 먼 길을 나서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랬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찾은 작은 섬 어디나 잠녀가 있었다. 지금은 제일 잠녀 수가 많은 하도 역시 10년 뒤를 기약하기 어렵다.

고 회장은 "밭 일이야 혼자서도 해도 바다는 혼자서 못간다"며 "앞으로 함께 작업할 사람이 없어서 물질을 못할 지경"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이기는 해도 작업을 하던 잠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나 쓰는 '해녀'

이 곳 잠녀들 역시 '해녀'라는 명칭이 낯설다.

서로는 이름이나 아이들 이름으로 불렀고 간혹 '잠네'나 '잠녀'같은 호칭으로 불렀다. 스스로 '해녀'라고 칭하는 경우는 병원에 갈 때 뿐이다.

임 총무는 "아직도 해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색하다"며 "그래도 병원에 가서 '뭐 햄수까'하고 물으면 '나 해녀우다'랜 한다"고 했다. 지자체 시책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해녀'라 하는 것 말고는 그다지 쓸 데가 없단다.

잠녀 수가 많고 일반에 많이 공개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바깥 시선이 아직은 불편하다.

고 회장은 "잠녀를 문화재로 등록하고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게 되면 잠녀들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사진을 찍자는 말에는 손사래를 친다. 잠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촬영하겠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괜찮은지' 제대로 묻지 않았다며 섭섭한 마음도 드러냈다.

임 총무는 "작업을 마치고 힘들어 하는 표정 같은 것만 찍어대는데 누가 좋아하겠냐"며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만 찍을 필요도 없는데..., 서문하기도 하고, 누군들 고운 사진을 찍고 싶어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환경이 편안한 때는 팔십 넘어도 물질을 해주만 이제사 누구 해지크라"하는 어머니들의 표정이 어둡다. 거의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